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6년 7월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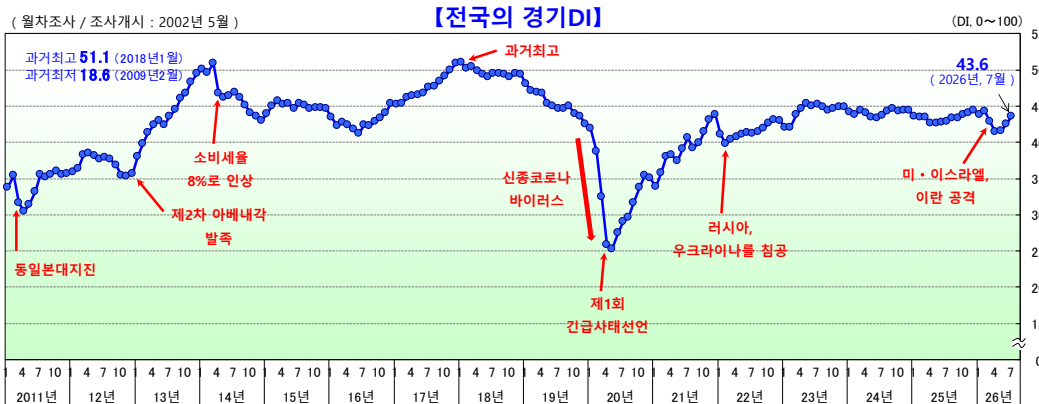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3개월 연속 개선

~ 매출·생산 회복과 AI 관련수요의 파급이 체감경기를 상승시켜 ~

(조사대상 2만 2,350사, 유효회답 1만 518사, 회답율 47.1%,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6년 7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1.0포인트 증가한 43.6으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매출 및 생산·출하량 회복과 더불어 AI·반도체 관련 수요 확대 및 에어컨 등 무더위 특수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당분간 상향으로 추이하지만, 고비용과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템포가 둔해져 완만한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10개 업계 중 『제조』 『건설』 등 6개 업계가 개선, 『부동산』 『소매』가 보합, 『농·임·수산』 『금융』이 악화되었다. 규모별로는 2개월 연속 전규모가 개선되었다. 전규모, 전업종에서 하계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역별로는 2개월 연속 전10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 [이번달의 토픽스] 「반도체관련」 체감경기는 고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2026년 쿠마모토 지진이 주변 산업 및 근린 지역의 경제활동에 끼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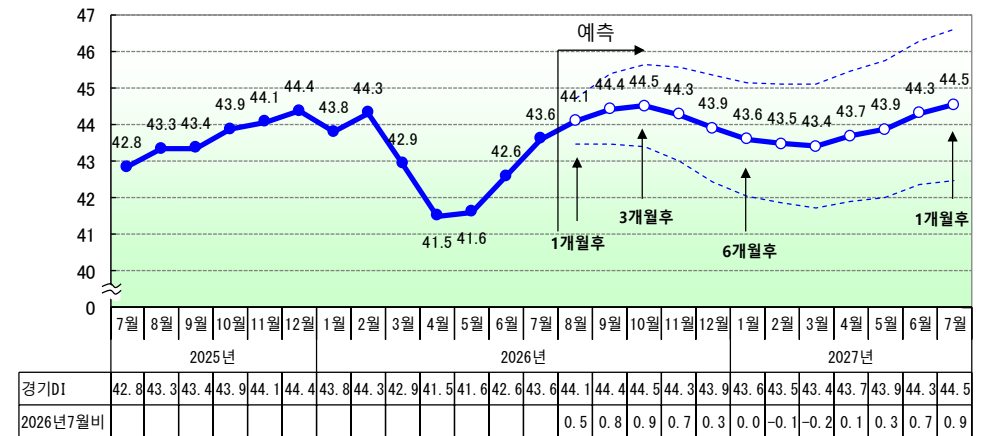
< 2026년7월의 동향 : 개선 >

2026년 7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1.0포인트 증가한 43.6으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매출 및 생산·출하량 회복과 더불어 AI·반도체 관련 수요 확대가 상승요인이 되었다.

7월은 반도체제조장치 및 전자부품의 수주가 증가하여 AI관련 수요가 전력·통신설비 등에도 파급하였다. 에어컨 등 무더위 특수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임금인상을 배경으로 숙박 및 음식의 시세가 여전한 한편, 전기·가스요금 지원도 경기를 지탱하였다. 한편 중동 정세가 다시 긴박해지고 원유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사입 가격은 고수준으로 추이하여 가격전가 지연 및 인력부족은 모두 하락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향후의 전망 : 완만히 개선 >

향후는 임금인상 및 감세정책, 정부의 성장투자가 가계의 실질구매력과 기업활동에 있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방일객의 장기체류화 등 인바운드 소비도 호재이다. 한편 환율 동향 및 고비용으로 인한 가격상승의 촉진 외에, 장기금리 상승은 설비·주택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6년 쿠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영향도 우려된다. 향후의 경기는 당분간 상향으로 추이하지만, 고비용과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템포가 둔해져 완만한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